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36 남도 음식축제

산·들·바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을 맛아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맛의 향연’이 전남 일원에서 한창이다. 오는 9일부터는 순천에서 전국 최대규모의 음식축제가 열리는가 하면 입맛을 다시게 하는 광양 숯불구이축제와 벌교 꼬막축제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유기농법을 통해 재배된 농산물, 그리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풍부한 수산물은 전남만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올해로 15회를 맞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다.

매년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에는 ‘자연에서 찾은 어머니 손맛! 남도생활이야기’이라는 주제와 ‘남도의 밥상! 한국인의 건강’이란 슬로건으로 열리게 된다.

축제기간 중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명인들이 만든 음식과 전통주를 맛보고 남도 발효음식 역사관을 구경할 수 있다. 또 마당놀이와 품바 공연, 음식 마술 퍼포먼스, 국악 공연 등도 감상할 수 있으며, 짚물 공예, 길쌈, 천연 염색, 도자기 만들기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11일 오후 1시부터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성곽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긴 사랑의 고추 줄에 고추 달고 소원문 쓰기’와 ‘새끼줄에 매달린 가장 많은 고추 개수와 최대 참여 인원’이라는 세계 기록 도전 행사가 펼쳐진다. 순천시와 사랑의 열매 전남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도전은 한국 기록원이 전문 장비를 동원, 길이와 개수를 측정하게 되며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본사에 공식 등재될 예정이다. 또 행사에 사용된 고추는 행사가 끝난 뒤 사랑의 김치 담그기에 사용된다.

자연의 맛

10월 들어 전남 일원에서 남도음식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널배를 타고 꼬막을 잡는 보성 벌교 어민들(사진 위)과 지난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모습(아래). 〈광주일보 자료사진〉

맛의 고장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음식 문화 축제

감칠 맛 나는 광양 한우·벌교 꼬막…볼거리도 풍성

순천시는 축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순천만과 낙안읍성 간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낙안읍성은 축제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된다.

▲광양 숯불구이 축제=백운산 참나무 숯불로 구워낸 ‘원조’ 광양 전통 숯불구이의 참맛을 음미해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공원 일대에서 열리게 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빛과 꽃, 그리고 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3만여 평 이르는 코스모스 꽃밭과 아름답게 조성된 서천둔치를 배경 삼아 펼쳐진다. 광양지역 12개팀이 참여한 광양 풍물굿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제3회 코스모스 가요제와 광양버꾸놀이 발표회, 명인명무전, 모듬북 공연, 불꽃놀이와 레이저 쇼가 진행된다.

또 행사기간 동안 한우축산물 판매장이 운영되며, 광양 숯불구이 백일장과 광양 한우 불고기 가족요리 체험, 추억의 떡메치기, 도자기 체험 등도 마련된다.

“다 맛있다”

▲벌교 참꼬막 축제=꼬막의 고장 벌교에서도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7회 벌교 참꼬막축제’가 진행된다. 제일고와 대포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꼬막축제에서는 ‘널배타기’를 비롯한 갯벌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 꼬막 삶고 시식하기, 꼬막까기, 녹차시음 등이 축제기간 내내 이어지며 벌교가 주무대였던 ‘소설 태백산맥’의 문학기행(중도방죽걷기 등) 행사도 준비돼 있다. 특히 대포리 갯벌에서는 꼬막 잡기와 꼬막널배타기 등 다양한 갯벌 체험행사도 열린다.

벌교 여자만 갯벌은 모래나 황토가 섞인 다른 지역 갯벌과는 달리 차진 진흙이 유명하며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참꼬막은 헤모글로빈과 단백질, 무기질, 칼슘,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달 말 홍콩을 방문한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가운데)이 (주)동영유유한공사, 계명세계여행 대표와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광주시-홍콩·中 여행사 협약

광주시가 홍콩과 중국의 대형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협약을 잇따라 체결, 이달부터 광주 관광상품 홍보와 모객 활동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홍콩과 중국 광저우(廣州), 난창(南昌),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해 현지 한국상품 기획사,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신규 관광시장 개척 및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시는 이번 판촉활동에서 홍콩 여행업계 1위 업체인 (주)동영유유한공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광저우시 최대 여행사인 남호국제여행사를 비롯 동방국제여행사 등과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광주관광상품 광고와 모객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어 광주시와 관광교류협약을 맺은 난창시 강서광대국제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세일즈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 관광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광주~제주간 이동문제와 체험상품을 고흥 녹동항및 목포항을 이용한 고속페리와 남도음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강해 홍콩과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의 날’ 유공자 표창

광주시는 7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35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식을 갖고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관광업계, 학계,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대만 등 동남아지역 국제선 전세기 취항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주)랜드뱅크여행사 한명수 대표를 비롯 광주 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힘써온 관광업체 종사자 12명, 관광진흥업무 담당 공무원 5명이 시장 표창을 받는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업계 종사자와 관계자 등 20명이 광주관광협회장으로부터 감사장과 공로패를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지역관광의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특급호텔 건립과 어등산 관광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민속촌, 역사문화마을 등이 조성되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호남권 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